

-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명개정(병기사용) 요청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접수 번호	47
----------	----

2016년 9월 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청 원 자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 24길 101동 801호
(목동 효성아파트) 최영철 외 1,817명

나. 소개의원 :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16년 8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16년 8월 19일

마. 상정일자 :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6년 9월 5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공항대로 염창역 주변 일대는 예전부터 목동 주민들이 대다수 살아왔고(강서구 염창동 공항대로 주변은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지금 현재 목2동 주민만 3만 명이 넘는 동이 되었으며, 여기에 목3, 4동 주민을 합하면 대략 9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염창역이 급행역인 관계로 유동하는 인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
- 그럼에도 강서구 염창동만을 의식한 염창역을 사용하고 있기에 원래 목동인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구목동역을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염창역 전 역사 이름은 신목동역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구 목동역과 잘 어울리게 될 것으로 사료됨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주변은 공향대로를 사이에 두고 강서구와 양천구로 나뉘어져 있음. 강서구는 염창동이지만, 양천구는 목 2, 3, 4동 지역임
- 원래 공향대로 염창역 주변 일대는 예전부터 목동 주민들이 대다수 살아왔고(강서구 염창동 공향대로 주변은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지금 현재 목 2동 주민만 3만 명이 넘는 동이 되었음. 여기에 목 3, 4동 주민을 합하면 대략 9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염창역이 급행역인 관계로 유동하는 인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
- 그럼에도 강서구 염창동 만을 의식한 염창역을 사용하고 있기에 추가로 병기하여 원래 목동인 점을 고려하여 구목동역을 병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염창역 전 역사 이름은 신목동역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구목동역과 잘 어울리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목동을 찾는 외부 손님들께도 손쉽게 잘 알려지고 목동 주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역명 병기는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기관과 단체 등의 민원 해소 및 지하철 운영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 흡수 함

5.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은 공항대로를 사이에 두고 강서구 염창동과 양천구 목동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염창동만을 의식하여 염창역을 사용하고 있는 바, 9호선상 바로 인접한 신목동역을 고려하여 염창역에 “구목동역”을 병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지하철 역명은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개선계획』¹⁾에서는

역명병기와 관련하여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에는 유상판매를 통해 역명을 병기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²⁾³⁾

- 2009년 7월 개통된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은 등촌역과 신목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양역, 신논현역, 봉은사역과 함께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2013년 출근시간 기준으로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구간 혼잡률이 237%에 달하는 등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은 역임

또한, 염창역은 공항대로 상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1번과 2번 출입구는 강서구 염창동, 3번과 4번 출입구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내 안내표지 역시 각각 염창동과 목동의 지명을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7호(2015.12.13.)

2) 유상판매 외에 역명병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인자 부담으로 함

3) 최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9개역(방배역, 을지로입구역, 명동역, 압구정역, 홍제역, 서대문역, 강동역, 청담역, 단대오거리역)에 대해 유상판매를 실시하여 7억 87백만원(서울메트로 4억 96백만원, 도시철도공사 2억 91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일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통과함에 따라 이용승객이 많고 염창동과 목동의 경계에 지하철 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염창동과 목동의 주민접근성과 지역 중심시설로서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염창역”에 “구목동역”을 병기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임⁴⁾
- 한편, 서울시장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역명병기는 국가·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기관과 단체 등의 민원 해소 및 지하철 운영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으로 수요를 흡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⁵⁾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1

4) 지명이 역명으로 복수로 사용된 사례는 “구반포(9호선), 신반포(9호선), 반포(7호선)”, “논현(7호선), 신논현(9호선)”, “방화(5호선), 신방화(9호선)” 및 “금호(3호선), 신금호(5호선)”역 등이 있음

5) 지하철9호선 염창역 역명병기 청원에 대한 의견 제출, 교통정책과-18224(2016.0.25)

[별첨 1]

채택의견서

- 청원명 :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명개정(병기사용) 요청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 채택의견
 - 동 청원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은 공항대로를 사이에 두고 강서구 염창동과 양천구 목동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염창동만을 의식하여 염창역을 사용하고 있는 바, 9호선상 바로 인접한 신목동역을 고려하여 염창역에 “구목동역”을 병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 동 청원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등촌역과 신목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양역, 신논현역, 봉은사역과 함께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2013년 출근시간 기준으로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구간 혼잡률이 237%에 달하는 등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은 역임
- 따라서, 염창동과 목동의 주민접근성과 지역 중심시설로서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염창역”에 “구목동역”을 병기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인 바,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47	접수연월일	2016. 8. 17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양천구 중앙북로 24길 101동 801호 (목동, 효성아파트)	
	성 명	최영철 외 1,817명	
소개의원	김 경 자(양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건 명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명개정(병기사용) 요청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교통위원회		
<p>○ 공항대로 염창역 주변 일대는 예전부터 목동 주민들이 대다수 살아왔고(강서구 염창동 공항대로 주변은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 곳)지금 현재 목2동 주민만 3만 명이 넘는 동이 되었으며, 여기에 목3, 4동 주민을 합하면 대략 9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염창역이 급행역인 관계로 유동하는 인구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임.</p> <p>○ 그럼에도 강서구 염창동만을 의식한 염창역을 사용하고 있기에 원래 목동인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구목동역을 병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p> <p>아울러, 염창역 전 역사 이름은 신목동역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구목동역과 잘 어울리게 될 것으로 사료됨.</p>			